교육칼럼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어느 영감님의 방문

우리 공동학습장 저 건너에 우뚝한 산이 있다. 병풍산, 불태산, 삼인산이 형제처럼 우애 있게 나란하다. 그 밑자락으로 용전 들판이 펼쳐지고 영산강이 본격적으로 굽이치기 시작한다. 이 강둑 언저리에 공동학습장이 있으니 풍광이 좋을 수밖에. 무등산만큼은 못 하지만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제법 있는 편이다.

어느 깊은 가을날, 그해에는 조금 이른 김장을 했다. 워낙 많은 양의 김장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서두른다. 집단생활에서 때를 놓치면 생각보다 훨씬 심란해진다.

학생, 학부모, 우리 가족 등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배추를 버무리고 있는데 등산복을 입은 허름한 영감님이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김치가 참 맛있게 보이네요. 어디 한 쪽 먹을 수 없겠어요?"

학부모들의 빠른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

"그러십시다."

한 학부모가 싹싹하게 웃으며 김장김치 한 가닥을 찢어 영감님 입에 넣었다.

맛있게 잡수고 나서 물었다.

"이곳이 뭣 하는 곳입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들이 한두 마디씩 했다.

"하늘 아래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몇 푼 안 되는 봉급으로 제자 수백 명을 이곳에 데고 와서 공부 시키고 있다요."

김장판 옆에는 학생들이 일손을 돕고 있었다.

"그래요, 듣고 보니 참 훌륭한 선생이네요."

영감님이 김치를 맛있게 먹으니까 엄마들이 비닐봉지에 몇 폭 싸드렸다. 학생한테 들어다 주라고 시켰다.

그런데 공동학습장 초입에서 큼직한 검정색 승용차에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영감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잽싸게 문을 열었다. 학생이 가져간 김치는 뒷트렁크에 실었다.

그 영감님이 왔다 간 후에는 매달 익명으로 쌀이 왔다.

도대체 누가 쌀을 이렇게 보내줄까?

그분이 누굴까?

너무나 궁금하던 차에 건너건너 소문 끝에 알게 되었다.

김원본 교육감.

당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동학습장 소문을 듣고는 소리 없이 그리고 철저히 내 뒷조사를 했다고 한다.

교육청에서 나를 불렀다. 교육감이 급하게 찾는다고 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2층 교육감실로 갔다. 비서실에서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육감이 직접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 주셨다.

"당신이 박주정 선생이십니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보게 되어 너무 좋네요."

손을 잡고 넓은 집무실로 데려가면서 계속 말씀하셨다.

우리 광주시에 당신 같은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나는 박 선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어요. 허허. 박 선생님의 뒷조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선행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우리 교육청의 생활지도 정책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등등.

그렇잖아도 학생들 생활지도는 교사로서 하고 싶은 업무였고 나름 실천해온 분야가 아닌가. 나는 그때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장학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교육감께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다.

"교육감님, 저도 생활지도 장학사가 되고 싶어서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됐네요, 경험이 많으니 잘 되겠네요. 꼭 합격 기대합니다."

큰 몸집에 두 손을 내밀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셨다.

그 후 나는 세 분의 교육감을 모시면서 18년간 교육청 학생생활지도담당 업무를 맡았고 장학관, 국장이 되었다.

떠도는 소문이 김장김치에 머물더니, 쌀 포대로 오가면서 과분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기독교가 '벙어리개' 되면 세상이 등을 돌린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인상을 준다. 특히 불의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뒷북만 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사회의 아픔과 고통, 불평등 앞에서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그 불의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외면한다. 정말 기독교는 불의한 세상을 등지고 과거에 갇혀버린 종교인가?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불의가 만연한 시대를 산다.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고통받으며,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는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은 종교, 특히 사랑과 정의를 외치는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기독교는 때로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외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불의한 현실을 외면한 채 천국만을 이야기하고, 부조리한 시스템 앞에서 침묵한다면, 과연 세상은 기독교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정의(미슈파트)와 공의(체데크)를 강조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회의 불의와 부패를 향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비판했다.

예수님 또한 세리나 창녀 같은 소외된 자들을 품으시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꾸짖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불의와 맞서 싸우며 박해 속에서도 사랑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왜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기독교가 불의한 세상에서 '뒷북'을 친다고 비판받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지이다. 많은 신자가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한 '죄'의 문제로만 치부한다. 구조적인 불의나 제도적 폭력에 대한 이해 없이 개인의 도덕성만을 강조한다면, 세상은 기독교를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로 여길 수밖에 없다.

둘째, 권력과의 유착이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고 부와 명예를 추구할 때, 그 교회는 예언자적 기능을 상실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잃게 된다.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이를 옹호하는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가장 먼저 외면당하는 지름길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성경 말씀(디모데전서 6:10)은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되어야 할 준엄한 경고이다.

셋째,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이중성이다.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문, 재정 비리, 권력 다툼 등의 문제들은 세상에 가장 큰 실망과 비판을 안겨준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는 예수님의 말씀(마태복음 7:3-5)처럼, 교회가 스스로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세상의 불의만을 지적한다면, 그 어떤 메시지도 힘을 얻을 수 없다.

넷째, 시대 변화에 대한 경직된 태도이다. 젠더 감수성, 환경 문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과의 관계 등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담론에 대해 기독교가 과거의 잣대만을 들이대며 배타적이거나 혐오적인 태도를 보일 때, 젊은 세대와 지성인들은 기독교를 시대에 뒤떨어진, 소통 불가능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복음이 진정으로 전파될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사회의 불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때를 놓치고 뒷북을 자주 치면, 성경에 기록된 '벙어리개'와 같다는 조롱을 받게 된다. 이사야 5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잠꾸러기요 눕기를 좋아하며 잠자기를 즐겨하나니."

이 말씀은 깨어 경고하고 지도해야 할 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다.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의에 대해 경고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며 존경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뒷북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첫째, 성경적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뜻을 실천해야 한다. 이는 사회의 불의한 구조를 비판하고,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사회 정의를 위해 앞장설 때, 세상은 비로소 기독교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둘째, 겸손한 자기 성찰과 회개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의 문제에 눈감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개혁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투명한 재정 운영, 건강한 리더십 구축, 성숙한 윤리 의식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진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셋째, 사랑과 환대의 정신 회복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는 조건 없는 사랑,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인종, 성별, 지위, 종교를 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며, 편견 없이 포용하는 모습이야말로 세상이 기독교에서 찾고자 하는 본연의 모습이다. 우리가 배타성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할 때, 복음은 비로소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넷째, 복음의 본질에 대한 재정립이다.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나 규칙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관계이자,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희망(elpis)의 메시지를 현대인의 언어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전달해야 한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모든 문제에 직면할 용기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기독교가 불의한 세상에서 뒷북을 치며 외면당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가진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세상의 필요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아픔과 함께하는 앞장서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고통받는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불의한 시스템에 대해 정직하게 비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삶으로 실천할 때, 세상은 비로소 기독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임을 깨닫고 다시금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단지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략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Great Commission)의 본질이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lev Elohim)을 나타내는 길이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헌신할 때, 기독교는 결코 뒷북치는 종교가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다.

이한규 목사
들꽃사랑교회 담임
시인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축 미션21 창간26주년

CHRIST CAN CHANGE THE WORLD THROUGH YOUTH ! 그리스도는 십대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킨다 !

"YFC"는 Youth For Christ 의 약자로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이"라는 뜻을 가진 국제적인 초교파 청소년 전문 선교 단체 입니다. 청소년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고, 훈련된 제자로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비젼이다.

이 일은 세계 127개국에서, 한국에서는 13개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1972년, 당시 수피아여고 교사이던 송준용 장로에 의해 시작 되어,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각 계 지도자 40명의 이사와 50여명의 후원 회원과 초교파로 10개 교회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택률 이사장

김원식 대표

주요 사역
○ 토요 모임(매주 11시) ○ 청소년 영한 성경 암송대회 ○ 국제청소년캠프 및 단기선교 ○ 청소년 사역 지도자 세미나
○ 학교클럽 활동(CLC) ○ 모범학생 장학금 지급(연2회) ○ 청소년 Summer Camp

(사단법인) 한국십대선교회 광주지구(YFC)

우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3번지 (4층) 전화 (062)369-7298 간사 010-9694-7298
후원계좌 (광주은행) 016-107-312115 (농협)355-0369-7298-13 예금주 한국십대선교회 광주지구

축 미션21 창간26주년

광주·전남 시니어선교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80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일상에서 실현하는 선교적 삶과 지역교회와 함께 이루는 선교공동체

기도제목
1. 교회와 선교단체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하게 하소서.
2. 교회의 풍성한 인적 자원들이 선교전문 인력으로 동원 육성되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3. 시니어 선교회 4대 비전이 균형있게 실현되어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목 적
한국교회 내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인 시니어 세대(40-80대)를 일으켜 선교전문인력으로 동원 육성하고 총체적 선교 사역의 활로를 개척 지원하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전파"의 사명 완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4대비전
1.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
2. 국내 이주민을 품는 선교
3. 남북통일을 예비하는 선교
4. 다음세대에 선한 영향력과 책임을 다하는 선교

주요활동
1. 선교학교 운영
2. 선교동원, 선교사 협력 및 파송
3. 비전 트립, 각종 선교세미나 포럼 개최
4. 글로벌 컨퍼런스, 선교대회, 기도회

조직
이사장 방충헌 장로
선교훈련원장 석창원 목사
회장 정동훈 장로
이주민선교센터장 전득안 목사
다음세대 및 의료선교위원장 서강석 원장
재정 및 행사위원장 김정숙 권사
기도 및 봉사위원장 서인정 집사

상담문의 : 정동훈 장로 010-3646-8291